

지역 소식통

부안군, 취약계층 응급 환자 이송비 지원 확대

부안군은 응급의료기관 불균형 격차를 완화하고 효율적인 의료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지원 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취약계층의 병원간 이송 지원 최소화를 위한 응급환자 이송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치료를 위하여 응급차량(의료기관 및 민간이송업체 구급차) 이용시 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방식을 확대하여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방법이 변경되었다.

지원대상은 이송일 기준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소아·청소년(0~18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서 고령자(65세이상)가 추가되었으며, 지원방법으로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이송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는데,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게끔 변경되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내년 조사료 전문 단지 조성사업 공모 선정

고창군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5년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 공모사업에 우수축산영농조합법인인 최종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사업'은 조사료 재배의 규모화 및 집단화를 통해 안정적인 국내산 조사료 생산을 위한 사업이다.

우수축산영농조합법인인 고창군 관내에 2025년부터 219ha 규모로 조사료 전문단지를 조성하고 2029년까지 5년간 340ha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한, 2029년까지 5년간 31억 6,800만원을 투입해 조사료 기계장비, 사일리지 제조비, 종자 구입비, 퇴비 사비 등이 지원된다.

양질의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해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수입 조사료의 불안정한 공급에 대비하게 된다.

특히 사료값 인상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생산비를 절감하여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벼멸구 피해농가 1억원 긴급 투입

고창군, 벼멸구 집중고사 피해 면적에 공동방제 약제 신속지원

고창군이 최근 벼멸구 피해 확산에 따라 군 예비비 1억원을 긴급 투입해 벼멸구 피해 확산방지에 총력전을 펼친다고 25일 밝혔다.

벼멸구는 주로 중국에서 발생한 바람을 타고 한국으로 이동하는 비래해 충·초·벼의 수확량과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최근 이상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6~7월에 날라온 벼멸구 개체수가 급

격히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벼멸구가 발생한 논에는 방제효과가 높은 벼멸구 전용 약제를 베풀어 아래까지 충분히 뿌릴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농약의 잔류와 비산 방지를 위해 읍면 농업인상담소에서 방제 홍보 및 지도를 추진할 예정이다.

고창군 매년 이상기후에 따른 돌발 병해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7월말~8월초 병해충 종합방제 지원에 예비

비를 5억1100만원을 투입했다. 이번에 추가로 예비비 1억원을 긴급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벼멸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 이상기후 및 돌발 병해충에 신속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며 "마을별 드론 공급을 확대해 공동방제 등을 통해 벼멸구 피해 방지에 총력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고향사랑기부금 활용사업 '눈길'

"소중한 기부금, 지역발전 마중물로" ... 청소년지원 · 동학농민혁명 위상강화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고향사랑의 열정을 담은 소중한 '고향사랑기부금'의 맞춤형 활용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고창군에 따르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고향사랑기부금제 일 반기부사업 및 지정기부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통해 고창군에 기부한 사람은 4,977명으로, 기부액은 6억4,400만원에 달한다. 고창 출신 기업인들부터, 초·중·고 동문회, 인근 지자체의 상호기부까지 모두 고향발전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기부에 동참했다.

고창군은 이렇게 모인 소중한 기부

금을 지역발전을 위한 마중물로 활용하고 있다. 행복누리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으로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동학농민혁명 발상지의 위상을 지켜가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홍보관 리모델링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특색있는 '지정기부사업'도 본격 도입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가을 재창단한 영선고등학교 야구부를 지원하기 위한 '고창의 별 육성사업 시즌'이 연말 모금 개시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어려운 중·고등학생들의 해외연수와 현지 학생들과의 교류를

돕는 '고창 청소년 '야날청향'도 사업을 준비 중이다. 고창군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발전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기부자들의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유창형 고창군 행정지원과장은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고창군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과 출향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고향사랑기부금 및 지정기부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고향사랑을 또는 고창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의회(박병래 의장)는 지난 24일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지사장 김완중)와 부안의 농어촌 현안논의를 위해 간담회를 의회에서 개최했다.

"부안군 농업 발전 위해 최선 다할 것"

부안군의회, 농어촌공사 부안지사과 간담회 가져

부안군의회(박병래 의장)는 지난 24일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지사장 김완중)와 부안의 농어촌 현안논의를 위해 간담회를 의회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박병래 의장을 비롯해 부안군의회 의원과 김완중 부안지사장과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지은행사업 △농어업기반시설 확충사업 △농어촌 공간개발사업 등 농어촌공사의 중점 추진사업과 부안군 농업 주요현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특히 안정적인 농업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해 '농어촌공사에 폭우에 대비한

우수개발사업 추진'과 배수개선사업 등 사업의 연속성 및 현장점검, 배제작물과 연계한 용배수로 사업추진'에 대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를 마친 후엔 민원현장을 함께 방문해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박병래 의장은 "농어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과 정책이 필요하다"며 "의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부안군의 농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예담엔지니어링, 정읍 화평의 집에 2000만원 상당 태양광 발전시설 기부

정읍지역 신재생 에너지 보급에 앞장서 온 (주)예담엔지니어링(대표 김장관)이 장애인 거주시설인 화평의 집(원장 김주일)에 2000만원 상당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기부하며 지역 사회에 따뜻한 나눔의 가치를 실천했다.

이번 기부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통해 장애인 복지 시설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대해 "신재생에너지는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에너지 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자원"이라며 "이번 기부로 더 많은 사람들이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



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화평의 집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9kW 용량으로, 연간 약 1만 2,000k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이는 시설에서 사용하는 전체 전력량의 약 23%를 충당할 수 있는 규모로 이를 통해 연간 약 140만원의 전기 요금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김주일 원장은 "장애인들을 위한 파

뜻한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기부를 통해 절감된 에너지를 장애인 복지 서비스에 더욱 집중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장관 대표는 "이번 태양광 설치로 장애인들이 요금 걱정 없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기여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주)예담엔지니어링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컨소시엄으로 참여해 왔으며,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 내 지속 가능한 에너지 확산에 기여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산내면 장금지구 전원마을 주택단지 분양

정읍시는 전원생활을 꿈꾸는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조성한 '산내면 장금지구 신규마을 주택단지'를 선착순 분양한다고 25일 밝혔다.

'장금지구 신규마을'은 산내면 장금지구 1771번지 일원에 약 2만4,975㎡ 규모로 조성된 전원마을이다.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의 기반시설 공사는 이미 완료된 상태이며, 전체 20필지 중 2필지가 분양을 마친 상황이다.

특히 장금지구는 시내와 차량으로 1시간 거리에 위치하며, 인근에 아름다운 옥정호가 있어 전원생활을 즐기기에 최적의 장소다.

옥정호는 섬진강댐 건설로 생긴 인공호수로, 유역면적이 763km², 총 저수량이 4억3,000만 톤에 이른다. 특히,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신비로운 풍광을 가까이서 감상할 수 있어 전원생활의 매력을 더욱 더해준다.

분양 면적은 400~670㎡이며, 분양 가격은 m당 16~17만 원으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공급된다. 주택은 최고 4층까지 건축할 수 있으며,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80%이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 주도로 신규 조성한 전원마을 단지 분양은 이번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도시민들에게는 더욱이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규마을 주택단지 분양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시청 건설과 기반조성팀(☎063-539-5842)으로 연락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